



김순덕 익산시의원, 어린이대상 농촌진흥청장 표창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남산)이 어린이 관련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김순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시상식에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았다. 2024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은 어린이 관련 정책 및 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에게 주는 상이다. 김 의원은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익산시 공공분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분야국 지원 조례, 저장강박의심기구 지원 조례 등 보건복지 및 교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입법 활동과 시민을 위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익산시의 미래와 비전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교육, 복지, 관련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체육중 여자축구부 창단

2023년 학교운영위 심의 통과... 1학년 14명 선수로 창단



전북에서 유일한 여자 중학교 축구부가 창단했다. 2023년 삼례 여중 축구부 해체 이후 4년 만이다.

전북체육중학교(교장 김상동)는 12일 오후 2시 본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여자축구부 창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창단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및 박용희 부회장, 유희태 원주군수, 김대은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 윤수봉 도의원, 이서기 문예재단장, 김난희 원주교육장, 학교운영위원장,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해 여자축구부 창단을 축하했다.

전북체육중학교 여자축구부는 2023년 이전부터 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23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1학년 14명의 선수로 창단하게 됐다.

축구부 첫 지휘봉은 홍진아 감독과 안보라 운동부지도자가 잡았다. 군산 출신인 홍진아 감독은 삼례중 한 별고를 졸업하고 국가대표 최유리, 이금민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국내 실업팀 선수들을 배출한 실력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 안보라 운동부지도자는 현대제철 프로선수로 활동했다.

김상동 교장은 "전북 유일의 여자축구부를 창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북 최고의 명문 여자축구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체육중학교의 여자축구부 창단을 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 기술 경연·가족 한마당 행사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지난 11일 남원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도 남원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900여 명이 참석, 현장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술경연과 각종 재난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위한 자리로, 소방기술경연 2개 분야(2인3각 릴레이, 개인장비장착 릴레이)와 노래시당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소방본부장 남원시장, 남원시의장, 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자리를 빛냈으며, 그동안 희생 봉사정신으로 남원의 의용소방대를 빛낸 모범의용소방대원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진 후 남원시에 사랑의 쌀 기증(100만원 상당)행사로 진행했다.

공은태 의소대 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남원의용소방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동범 동물병원장, 전북대에 1억원 기부

지동범동물안과피과병원 지동범 원장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전북대학교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동범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동범 원장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예비 수의사 후배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학을 빛내줬으면 한다"며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 대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금은 수의대 지정기금으로 지정돼 학생 실습 및 교육용 수술실 정비, 기구 투자 및 수의과대학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순창소방서 황순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1위 수상

순창소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분야에 출전한 황순필 소방교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난 9일을 시작으로 3일간 전북 15개 소방서에서 선발된 백여 명의 정예 소방대원이 참석해 6개분야(최강소방분야, 구조팀 전문분야, 몸짱분야, 생활안전분야, 신속동료구조분야, 소방드론분야)에서 경연을 겨루는 대회이다.

또한 각 분야별 1위는 6월에 있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 최강소방 분야는 △소방호스 전개·말이 △소방물 25kg 들고 타워 계단 이동 △타워(50kg) 들고 15m이동 △최

상층 오르기 등을 겨룬다. 총 1~4단계까지 경연시간을 함께 제일 빠른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순창소방서에서 출전한 황순필 소방교는 이번 대회 1위에 올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이상일 순창소방서장은 "현장활동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황순필 소방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순필 소방교는 "현장활동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면서 출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1위의 영예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가족관계 등록신고 연계 절차 책자 발간

남원시가 가족관계 등록신고와 연계된 후속 안내 절차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가족관계 등록 하차책자를 발간했다.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가족관계 등록 하차책자?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보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이 책자에는 혼인·출생·사망·개명 신고 처리 후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록,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혼인신고·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지원 서비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사망신고·사망자 재산조회, 재산상속 등 △개명신고·주민등록증 및 여권 재발급 절차 등이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가족관계 등록의 정확한 처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더 편하고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화장품 나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은 지난 12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함께 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에서 기부한 화장품 2,150개(약 5,800만원 상당)에 대한 전달식을 국민연금재단 문지호 이사, 국민연금공단 정경화 복지사업팀장,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화장품은 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기부 플랫폼'을 통해 후원받은 화장품으로, 이를 국민연금나눔재단을 통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으며, 기부된 화장품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배분되어 도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의 사회공헌사업인 '화장품 기부 플랫폼'은 화장품을 기부한 업체에 무상으로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부받은 화장품을 후원함

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내 장애인을 위해 화장품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승택 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와 국민연금나눔재단 등 관련 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기부자들의 사랑의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리라 확신하며, 그 뜻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화장품 전달식과 더불어 자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퍼스널 컬러(나만의 컬러 찾기)', '네일 아트 체험' 등 여성장애인의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행사를 더욱 의미있고 풍성하게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보절면, 1일 1가구 소통행진

남원시 보절면은 금년 면 정책 운영의 핵심을 주민과의 소통에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가구를 매일 방문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 시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월부터 지역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이불세탁지원(보송보송 이불이요~건강은 덤입니다) 등 11개 유형의 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절면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보절면 지역 인적안정망을 활용하여 지역 보호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복지기금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정 동참 및 홍보에도 앞장서 왔다.

한편 박종만 보절면장은 "면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살기 좋은 보절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 나무심기 전개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가 지난 12일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병용 전주시새마을회장, 박창석 새마을지도자전주협의회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세내공원에 철쭉 200주, 남천 250주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감축 실천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35개동 관유지와 유휴지 등 일대에 전주시 새마을지도자 1,200여명이 200그루 나무를 식재했다.

송병용 회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심기에 동참해주신 새마을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회원분들의 노력이 지구온난화 극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옥희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팜스테이 성료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지난 11일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120인을 대상으로 전남 나주 이슬촌 농촌체험 팜스테이 마을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팜스테이는 농촌에 머무르며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치유농업의 일종으로 이날 실시된 문화체험 행사에서는 우리 풍나물 기르기, 쪽파 수확,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유형기 조합장은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이번 계기로 농협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문화체험행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날리는 힐링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아 기쁘다"라며 희망드림봉사단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